



〈시몬(베드로)과 안드레이를 부르시는 예수님〉, 6세기, 모자이크, 산타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 라벤나, 이탈리아

**성화
해설**

성당의 한쪽 벽에 장식되어 있는 이 작품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젊은이의 모습으로 표현된 예수님께서 한쪽 손을 들어 고기잡이에 열중한 시몬과 안드레이 형제를 부르고 있다. 그물을 당기는 시몬과 노를 젓던 안드레이는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있다. 황금색 배경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고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입당송 시편 96(95),1,6

제1독서 요나 3,1-5,10

화답송 시편 25(24),4-5ㄴ,6과 7ㄴ,8-9(◎4ㄱ)

◎ **주님, 주님의 길을 제게 알려 주소서.**

- 주님, 주님의 길을 제게 알려 주시고, 주님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주님의 자비와 자애를. 주님, 주님의 자애에 따라,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
- 주님께서서는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도다.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시도다. ◎

제2독서 1코린 7,29-31

복음환호송 마르 1,15

◎ **알렐루야.**

-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마르 1,14-20

영성체송 시편 34(33),6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25년 전 신학교에 가기 위해 입학원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썼는데 한 가지를 못 쓰고 원서를 내려 왔습니다. 힘들었던 문제는 ‘신학교 입학동기’란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원서를 내기 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히 이게 ‘답’ 이다할 만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기도와 고민을 한 끝에 그 작은 칸에 ‘이끌림’이란 단어를 쓰고 아쉬운 마음으로 원서를 내고 온 기억이 납니다. 신부가 된지도 두 자리 숫자로 바뀐 지금 그때의 기억이 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곤 합니다. 어린나이에 그래도 괜찮은 답을 썼다고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복음을 선포하시며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도 같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네 명의 사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복음을 선포 하며 주님의 뒤를 따랐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에 등장인물로 예수님과 네 명의 제자들 그리고 남겨진 아버지와 삼꾼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피다가 이 인물들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해야 할 역할들이 전부 나타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 성소건 성직·수도 성소건 독신이건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곧 주님의 뒤를 이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제베대오와 삼꾼처럼 떠나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품어안아 주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묵묵히 견디어 내며 떠난 이를 위해 참아주며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를 발견하면 기꺼이 그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역할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어느 피정 중에 떠오르는 해가 아름다워 무심코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본 것뿐인데 고개를 돌려 숙소로 가려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을 오랫동안 보면 앞을 볼 수 없듯이 하느님을 자주 바라보면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들도 볼 수 없게 되겠구나, 혹 내가 세상의 유혹에 힘들어하는 것은 하느님을 자주 바라보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었구나.’

내일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세 가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과 주님을 자주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돈보다 귀한 사람



서영남 베드로 | 민들레국수집

그나마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졌던 세레자 요한이 잡혔습니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찌해 볼 길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고 하십니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아등바등 고기 낚는 일에 몰두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라고 하십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별이 보입니다.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갈 고등학교 삼학년 세 명이 봉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손님들께 스스럼없이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중을 돕니다. 손님이 빈 접시를 주면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받아들입니다. 민들레국수집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손을 호호 불면서 말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화음을 넣어 노래도 부릅니다. 민들레국수집에 별빛 젊음이 가득 찼습니다.

용산역에서 노숙하는 손님이 오늘은 세 번이나 식사하러 왔습니다. 한 시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굶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먹어 두어야 해요.” 연휴 동안은 밥을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먹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2003년 4월 만우절에 민들레국수집을 열었습니다. 그해

겨울 갑자기 늘어난 손님 때문에 조금 고생은 했지만 지금껏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쌀 떨어질까 걱정을 하기는 커녕 우리 손님들이 충분히 드시고도 남은 쌀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신 분들의 뜻대로 배고픈 분들에게 나눠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민들레국수집은 동인천역에 내려서도 좀 걸어야 합니다. 골목에 있어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부평에서 소문을 듣고 오신분은 세 시간을 헤매다가 못 찾고 두 번째 와서야 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그리고 한두 시간씩 걸어서 오시는 손님들입니다. 마음껏 식사를 하시곤 후식으로 과일 하나 들고 기분 좋게 떠나가는 손님의 표정이 보기가 좋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손님이 오셨다가 “고기가 없네.” 실망하고 간 뒤부터 되도록이면 돼지 불고기라도 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불고기를 내어도 조금만 담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대성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쌀이 떨어질까 봐 걱정 많이 했답니다. 쌀도 별로 없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에게 내어 드리면 줄기는커녕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면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계산하지 않고 배고픈 우리 손님들께 아낌없이 내어 드리면 신기하게도 더 많은 것이 채워집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4

인간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전망과 더불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화 사조가 생겨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장차 태어날 단계에서든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든 수많은 인간 생명이 파괴되는 현실은 극도로 심각하고 불안합니다” <생명의 복음 4항>.

1973년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낙태를 사생활 존중의 권리,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으로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조가 점점 만연해

졌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프랑스 RU사에서 먹는 낙태약까지 개발했습니다. 또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생명과학의 발달로 유전자의 조작, 동물 복제, 체외수정 등이 가능해지면서 생명이 실험실의 재료처럼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991년 추기경단은 생명의 위협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생명의 가치를 재천명하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5월 <생명의 복음>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이웃 곁에 머물러 있어라” (집회 22,23)

- 세계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 -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1993년부터 공식적인 해외 원조를 실시해 왔으며, 수많은 이웃들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동참하기 위해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 원조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기후변화, 분쟁, 불공정 무역 규제, 농작물의 생산 감소와 품귀 현상,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식량 가격이 54%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37개국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봉착하고, 30억 명 이상이 식량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최근 식량 위기의 결과로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의 수가 1억 명 가량 늘어났으며, 이 중 3,500만 명이 어린 아동이고, 1,000만 명이 5세 이하 아동이며, 5세 이하 아동 중 35%는 영양부족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식량 공급이 기후 변화, 생물연료 생산, 유가 상승, 인구 증가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무역의 등장은 농민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세계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가난한 국가의 농업부문을 잠식시켜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량은 지난 40년 전보다 두 배 이상이나 증가되었고, 이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분량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을까요?

굶주림은 식량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량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식량 위기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식량을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식량 위기는 분배의 문제, 곧 정의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량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이웃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직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고 공생하는 공동체 정신의 발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해 엄청난 재화를 소비하면서도 인간이 안고 있는 숭한 비참과 가난, 기아와 곤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지배욕과 인간 경멸, 불신과 이기적 사욕에서 파생되는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도 급선무입니다. 견딜 수 없는 가난과 궁핍에 신음하는 여러 지역의 갖가지 요구, 즉 식량, 건강, 교육, 노동에 대한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처에 산재하는 난민 구조, 이주민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고, “시련을 당하는 이웃의 곁에 머물러 있어라”(집회 22,23)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궁핍으로 시달리는 이웃을 말과 행동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사랑과 희망의 길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해외 원조 주일 헌금을 봉헌해 주셨고, 수많은 후원자들께서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성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주교

소식

오늘(1월25일)은 '해외 원조 주일' 입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형제적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과 많은 기도 바랍니다.

1월26일(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입니다.

전통적으로 설날에 교우들은 미사에 참석하여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7조에 의거하여 본당에서는 설날 미사 경문으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은 죽은 이를 잊지 않고 위령기도(가톨릭 기도서 74쪽)를 바칩니다.

2009년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첫 모임

- 준비물: 예신수첩 구입비(2천 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 처음 오는 분들은 대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학년	때	곳	문의
초등부 졸업예정자	2월14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중1	2월14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010-9954-2123
중2	2월14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2577-2123
중3	2월14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진리관 4강의실	010-9961-2123
고1	2월14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진리관 2강의실	010-9972-2123
고2	2월14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진리관 6강의실	010-8803-5695
일반	2월14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진리관 7강의실	010-8803-5695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월26일 나요한 요한 신부(61세) 2003년, 용인

●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 직원 모집

- 분야: 성서 사목 관련 업무 / 2월3일(화)까지 우편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전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 문의: 727-2026 서울대교구 사무처

수서동성당 미회원(여)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 문의: 2226-0231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민신부 추천서

평화화랑: 조창원 작품전

평화화랑은 조창원(바오로, 문정2동성당) 작품전을 1월 29일(목)~2월10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2. 1. 14시	평창동 수련소	011-9852-9817
서울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회	2. 1. 14시	돈암동 본원	010-6259-6364
성령 선교 수녀회	2. 1. 14시-17시	명륜동 본원	010-5730-6322
성 마리아 재속회	2. 1. 14시-17시	미아리 양성소	019-316-6293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2. 1. 14시-17시	정릉본원(샘물모임)	016-332-2885
파타의성모프린세스코수녀회	2. 1. 14시	수지 본원	011-9176-1212
한국순교복자수녀회(수원관구)	2. 1. 14시	청파동 총원	010-9409-0920
한국외방선교회	2. 1. 13시	한국외방선교회본원	010-4555-752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2. 1. 14시-17시	보문동 수녀원	011-9319-1690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1월30일(금) 오전 10시30분
- 곳: 민족화해위원회 사무실(가톨릭회관 205호)
- 문의: 727-2414, 5 민족화해위원회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봉사자과정 제2기 모집

- 대상: 고졸 이상 만 20세 이상 모든 교우(정원 80명)
- 과정: 1년 과정(주 2회 강의 및 실습 / 1·2학기), 하계 집중 연수
- 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전형은 서류심사)
- 접수: 2월6일(금)까지 E-mail, 우편, 방문 접수
- E-mail: tpc@seoul.catholic.or.kr / 학비: 1학기당 32만 원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사목센터 1층
- 방문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 문의: 727-2127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때, 곳: 2월6일(금)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27-2123, 4 성소국

제6차 부부여정 운영자 양성교육

- 대상: 본당에서 '부부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본당 주임신부 추천을 받은 부부, 자신의 부부관계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일반부부, 가족관계에 관심 있는 성직자·수도자
- 내용: 남녀차이, 성격차이, 대화, 부부갈등관리, 여가시간, 가정경제, 성, 서로의 가족, 자녀양육, 혼인성사
- 때: 2월28일~3월28일 매주(토) 오후 2시~6시(5주간)
- 곳: 절두산 순교성지 영상교육실 / 2월24일(화)까지 팩스(727-2376)로 선착순 접수(신청서는 www.ihome.or.kr에서 다운)
- 문의: 727-2070 사목국 가정사목부 / 회비: 1인 5만 원(교재 포함)

알림

모임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1:1 개인지도식)

· 때: 2월5일(목)-8일(일) 3박4일 / 010-6847-7222
· 곳: 메리워드 교육관(예수 수도회) / 회비: 15만원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 때, 곳: 2월6일(금)-8일(일),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관(초정) / 043)213-9103, 010-4400-1344(숙식 제공)

젊은이의 피정 "내안에 계신 하느님과 만남"

· 대상: 남녀대학생(회비: 5만원), 35세이하 미혼 직장인(회비: 7만원) / 010-8654-3006 윤상용 신부(예수회)

· 때, 곳: 2월13일(금)-15일(일), 소래 성바로로 피정집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 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874-6346, 011-277-0317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와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철야 기도회

· 기도: 김진방 회장(미사: 이승용·류한영 신부)
· 때: 2월7일·21일(토) 21시30분-4시(22시30분 미사)

· 곳: 배티성지 강당(성사, 면담) / 043)533-5710

치유 일일 피정

· 대상: 찬양과 영가(웃음치료) / 모든 교우 초대
· 강사: 김 메릴다 수녀(성가소비녀회) / 018-330-3283

· 미사: 박성구 신부 / 찬양: 예수사랑음악원
· 때, 곳: 1월28일(수) 13시-18시, 능동 작은예수회 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서울대학교 철야기도회

· 고해성사, 치유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 때, 곳: 매주(금) 22시, 동성고등학교 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Table with 2 columns: Week, Content. 1주 치유기도, 양형영성체, 2주 중개기도, 치유기도, 안수예절, 3주 연육 영혼을 위한 기도회, 4주 성체가동, 5주 가정미사, 주주: 서울대학교 성령쇄신봉사회

· 자녀축복 철야기도회: 1월30일(금) / 강사: 박용식 신부
· 직장축복 철야기도회: 2월6일(금) / 강사: 오연호 신부

서울대학교 치유기도회

· 때, 곳: 매주(수) 12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출구, 5528·5535·6512 버스환승 후 신림8동 사무소 하차) / 867-7900 성령쇄신봉사회

Table with 2 columns: Date, Content. 1월28일(수) 신년축복기도회(강제: 부부축복기도회), 2월4일(수) 신년축복기도회(강제: 자녀축복기도회)

복음화학교 1단계 91기 피정 · 92기 개강

· 문의: 753-8765, 776-2514 새천년복음화사도회

Table with 2 columns: Course, Content. 복음화학교 1단계, 91기 피정, 명동복음화학교 1단계 92기

교육

성모다산다회 차 예절교육

· 때, 곳: 2월10일(화) 10시-11일(수) 14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전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가톨릭 미술 아카데미 강좌 개강

· 이론 강좌: 교회 미술사(12강) / 실기 강좌: 유화, 소묘, 수채화, 유리화, 도예(각 14강)

· 때: 3월 첫째 주-6월 둘째 주(3월4일 개강)
· 문의: 921-1773(보문동 노동사목회관 1층)

아퀴나스 교회음악연구소 강좌(문의: 715-3793)

· 성가 반주를 위한 오르간 개인 레슨 1월5일부터(12주)

Table with 2 columns: Course, Content. 합창 지휘법, 성악 이론과 실기

한국 여성생활연구원 평생교육센터 (문의: 727-2471)

· 한글(학력 인정을 위한), ABC영어, 컴퓨터교육, 부모교육(대상관계), 성인 문해교재(한글·수학)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미술치료 1, 3, 4, 5단계

· 교육기간: 3월7일-6월13일 매주(토)
· 접수: 2월27일(금)까지(www.iccu.ac.kr/life)

· 곳: 송도 국제도시 캠퍼스(인천 연수구 송도동 9-3) / 문의: 032)830-7000, 7004

모집

가톨릭 어린이 발레단 단원 모집

· 대상: 유치부초등학교 3학년 / 010-4501-4161 성바로 수도회 아도라레 찬양무용단(전철 독립문역 근처)

탈리다쿰센터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742-9471, 3)

· 대상: 전 의정 미사전례를 위한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음악봉사 포함) / www.taly.co.kr

가톨릭대학교 영양과 직원(계약직) 모집

· 분야: 영양과(주방) / 문의: 740-9708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2월5일(목)까지 접수

·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참조

서울 가톨릭 요양 교육원 수강생(1급, 40명)모집

· 때: 3월2일-5월11일 매주(월·수·금) 총240시간
· 곳: 가톨릭회관 4층 / 회비: 65만원(선착순)

· 문의: 762-2225 노인복지위원회(전화접수)

명동성당 로고스 합창단 2009년 정기 신입단원 모집

· 대상: 성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교우 및 예비자(오디션: 자유곡 1곡) / 011-9602-6964 한선아

· 때, 곳: 2월8일(일) 18시, 문화관 2층 소성당

마천동성당 마니피캄 챔버앙상블 단원모집

· 내용: 10지구 마천동성당에서 미사전례 봉사와 연주에 참여하실 단원을 모집함 / 010-9989-5699

· 대상: 교우(관현악기 전공자 및 아마추어 연주자)

본천5동성당 성가정 성가대 단원모집

· 내용: 전문 성악 성가대 각 파트별 단원
· 대상: 서울대학교 내 모든 교우 / 887-4491 사무실

· 오디션: 2월8일(일) 15시(지정곡 및 자유곡)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봉사자 모집

· 내용: 잠원성당 가정의료부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을 찾음 / 010-5250-4279 김 크리스타 수녀

· 대상: 의무기록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봉사자를 찾습니다

· 분야: 간병인, 가사도우미 (양로원에서 숙식을 함께 하실 봉사자를 찾음) / 보수: 월 70만원

· 문의: 010-6274-0531 모니카의 집(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

2009년도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 모집

· 대상: 건진성사를 받은 만 16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성실한 교우로서 4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기에 합당한 분 / 2월28일(토)까지 접수

· 지원서 교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서울 지구 형제회(www.ofskorea.org)에서 내려받기

· 문의: 779-3881, 010-6274-0511, 010-9619-2200

한국 CLC 직원모집(문의: 705-8163)

· 분야: 사회복지, 회계(각 1명) / 96ccl@hanmail.net

· 대상: 25세-40세미만, 아동·사회복지전공, 회계경력자(평신도 공동체에 전망을 둔 교우 우대)

· 월-토 근무(토요일 격주 오전근무), 4대 보험

· 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 2월4일(수)까지 접수(서류전형 후 면접자 개별통보)

마자벨로 여성학교 학생모집

· 대상: 여성이면 누구나(나이 제한 없음) / 과정: 초등학교(한글반·저학년·고학년) 중·고등학교(2년)

· 교육기간: 초·중·고 매주(월-금) 9시30분-13시 주5일 / 특별반: 영어반 매주(화·목) 14시-16시

· 문의: 841-3361, 832-2654 살레시오 수녀회(영등포구 신길5동 전철 7호선 신봉역 하차 4번 출구 버스 507·5616·5620·5625·5627·5713·6411·6512)

서울 베네딕도 유치원 교사 모집

· 대상: 유치원 정교사, 견진 받은 교우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 / 문의: 925-9893, 010-7337-7821(alsowithyou@hanmail.net)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1월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는 쉽 / 문의: 753-0815

첫 토요일 신심미사

· 때, 곳: 2월1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56-3473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문시놀,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1월29일(목) 오후3시, 명동성당 별관

절두산 순교성지 연영회 기도·미사

·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 때: 1월30일(금) 12시(연도)·13시(미사)

영어로 배우는 성경 공부와 영어 미사

· 때, 곳: 2월1일(일) 15시-17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당일접수(www.oblates.or.kr)

· 문의: 010-2778-7145 오블라테 선교 수도회

몸과 마음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치유미사

· 지향: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척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들,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성수 도유 예절) / 집전: 남영희 지도신부

· 때, 곳: 1월29일(목) 오후2시4시, 새남터성지

· 문의: 711-2507 성모성심 가나안 봉사회

안내

(국내 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 문의: 764-4741~3(www.성가정입양원)
· 주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성령 선교 수녀원 건물 일부 개방

· 각종 세미나 및 모임, 소그룹 피정, 여성들을 위한 개인 피정으로 사용가능 / 문의: 741-4895

무료 가정방문 호스피스 봉사

· 대상: 6개월 이내 임종 예상 모든 환자
· 지도: 이경식 박사, 송관섭 신부

· 문의: 887-2311 삼성산 호스피스 봉사회(주최)

대치4동성당 부설 '아름다운 가정 상담소' 전화

· 내용: 가족 갈등, 폭력, 부부, 노인, 교정 치료, 온라인 상담(www.bhc.or.kr) / 3288-1516

· 매주(월-금) 9시-18시, (금) 19시 가족대화집단상담

빈민사목위원회 재활용 협동조합 '살림'

· 환경을 살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재활용 매장을 운영, 나눠 쓸 수 있는 의류·생활용품 기증바람 / 987-3978 수거, 010-2985-3978

성 바오로의 집

· 성 바오로 집에서는 남은 여생을 기도하며 함께 생활하실 어르신들의 편의를 기뻐함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의 여성 어르신(입소비용 없음) / 572-5701, 010-9930-9403

뽀뽀 나우리 상담센터(문의: 2248-4583, 4)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에서 운영
·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및 사회적응 집단치료 등 / 대상: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명동성당 2월 예비신자 교리학교

Table with 3 columns: Course, Content, Time. 토요반, 매주(토) 오후 5시, 교육관 305호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성경시대의 여인들

미리암 파인버그 비머시 지음 | 김정훈 옮김 |
바오로딸 | 104쪽 | 1만 원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과 그 시대 풍습을 살펴봄으로써 성경 시대 여인들의 삶과 영성, 문화와 역사를 돌아보며 그 당시 사건과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한다.



거꾸로 읽는 신약성경

정영식 지음 | 성바오로 | 184쪽 | 1만 원

가톨릭신문에 연재했던 글로 성경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성경 목상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몸과 정신, 마음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랑으로 꽃씨를 남기듯

김 보니따스 지음 | 성서와 함께 | 160쪽 | 6천 원

초봄의 맑은 햇살 같은 사랑과 위로의 꽃들이 가득한 기도와 찬미의 시집이다. 우리의 시린 가슴에 따스함과 빛을 주는 김 보니따스 수녀의 나지막한 고백과 찬미의 시편들로 맑고 소박한 시심과 깊은 묵상, 기도가 담겨 있다.



사랑은 사랑으로

막시밀리아노 에라이스 가르시아 지음 |
충주 가르멜 여자수도원 옮김 | 기쁜소식 | 183쪽 | 1만 원
스페인 가르멜의 막시밀리아노 신부의 피정 강론으로, 가르멜 공동체들이 즐겨 읽는 책이다. 성녀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은 책이다. / 구입문의: 762-1194



예수와 또 다른 이름들

폴 니터 지음 | 유정원 옮김 | 분도출판사 | 270쪽 | 1만2천 원
지구상에 공존하는 수많은 종교 사이에서 그리스도교가 유념해야 할 핵심 개념을 연구하는 신학자인 저자가 해방신학과 종교신학의 연관성에 대해 밝혔다. 또한 교회, 영성, 세계 선교에 대해 새롭게 명료하게 재해석했다. / 구입문의: 2266-3605



여정 첫걸음(신약성경 1 - 복음서와 사도행전)

생활성서사 엮음 | 272쪽 | 1만2천5백 원
성경을 처음 대하는 이들과 새로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구약성경에 이은 신약성경 첫 번째 권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담았다. 성경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제9회 핸드벨 정기연주회

· 입장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B석 1만 원
· 예매: 1588-7890 | 문의: 583-6295, 727-224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가톨릭핸드벨연합회는 2월4일(수)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9회 핸드벨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60여 명의 연합 핸드벨 연주자들이 교회음악과 클래식 음악, 한국 가곡, 크리스마스 캐럴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한다. 이 연주회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며, 연주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장애인시설에 핸드벨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남준 페스티벌 'Now Jump'

· 입장권: 성인 7천 원, 중고생 5천 원, 초등학생 3천 원
· 예매 및 문의: 031)201-8529(www.njpartcenter.kr)



비디오와 TV의 이미지를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킨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 기념 페스티벌이 2월5일(목)까지 백남준 아트센터와 지앤아트스페이스, 신갈고 체육관에서 있다. 백남준의 작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람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성인·중고생 2천 원, 초등학생 1천 원 할인(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전혜전 피아노 독주회

·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497-1973, 011-215-9471



Bradshaw & Bueno 국제 콩쿠르, 뉴욕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수한 전혜전(세레나, 압구정성당)의 피아노 독주회가 1월28일(수)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있다. 천국, 지옥, 연옥이 잘 묘사되어 있는 단테 소나타와 함께 현대사회의 자살 문제를 되짚어 보고 생명을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50% 할인한다. (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뮤지컬 '카페인'

· 입장권: R석 4만5천 원, S석 3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742-9005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5시, 19시 / 일 14시, 18시



바리스타와 소믈리에의 만남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카페인'이 2월28일(토)까지 대학로 라이브극장에서 공연한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랑'과 '결혼'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창의적이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2인 극으로 구성되었으며 6인조 라이브 밴드와 함께 환상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